소년단

1959.6

소년단의 명절날에

동시

주 태 순

향기로운 꽃속에 춤 추는
나비같이 꿀벌같이 즐거운 우리,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소년단의 명절 맞는 우리,

자랑인들 얼마나 많은가,
소년단이 탄생하여 열네해에
박 원진, 리 수복 수 많은 영웅 형님들을
민청원으로 기르며 자라난
소년단의 명절날에,

마음껏 배우는 높은 행복을,
소원껏 뛰노는 끝없는 기쁨을.
하늘에도 바다에도 비길 수 없어
우리 모두 소년단의 경례 드립니다.

저 궁전 같은 학교며
록음방초 우거진 공원에
온갖 가지 놀음터 마련해 주신
당과 김 일성 원수님 앞에
소년단의 인사 드립니다.

망망한 바다와 아아한 산 명승절경
그림보다 아름다운 곳에서
야영의 생활로 즐길 때면
감사의 정 더욱 솟구칩니다.

아, 공산주의 새봄이 꽃피는
저 아름다운 희망의 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항일 빨찌산의 피'줄 이어 나가리.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6호 내용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에서

(3회)

리 호일

무장대오의 선두에 선 김 일성 원수

우러러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이나라 운명이 칠성판에 오른 암담한 때에
삼천만의 가슴에 용기와 희망을 주신
오, 우리의 수령 김 일성 원수!

눈보라치는 동북땅을 손'금같이 글어쥐고
원수님은 안도시 서문 밖 거리에서
친히 불패의 무장대오 준비하셨나니
그때부터 였습니다.

밀림의 긴긴 밤 열하고 다섯 성상
왜놈을 짓부시며 애국의 홰'불 높이 든 것은
강철의 령장 김 일성 원수께서
혁명의 무장대오의 선두에 서 계신 것은.

아 자꾸만 우러러 가슴이 달아오릅니다
조선 인민 혁명군 거느리시고 진군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원수님 초상 앞에
우리는《만세!》를 높이높이 웨칩니다.

소왕청 방어 전투

충충 계단을 밟고 방안에 들어설 때
준령을 넘고 밀영지에 찾아간듯
안내자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지는데

우리는 봅니다. 여기 한장의 전투화
해를 따라 늘어가는 유격 근거지에
혈안이 뒤집혀 습격하여 온 왜놈들
소왕청에서 몰살 당한 통쾌한 그림!

원수님 싸창 높이 추겨들고 진두에 서서
항일 유격대와 인민들을 지휘하셨나니
원쑤를 소탕하는 총 소리 만세 소리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뒤흔드는듯 합니다.

동녕현성 전투

백년을 보고 천년을 들어도
어텐가 모자라는 것만 같으리니
우리는 력사의 그림 심장으로 더듬어 봅니다.

그때는 1933년 3월
원쑤들이 둥지 튼 쏘련 국경 동녕현성에
어두운 밤을 째는 총 소리 울렸나니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쏘만 국경에 불을 지르고
북으로 침략의 마수 뻗치려는
원쑤의 숨통 무찔렀거늘

우리는 천만년을 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원수님 지휘하는 항일 유격 부대
중국 반일 부대와 어깨 겯고 싸우신 것을.

강물에 금빛 태양이 비끼듯
피로 맺어진 전투 위훈을 두고
항일 유격 부대의 불패의 위력을 두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깁니다.

일제 군용 렬차 습격 전투

안내자의 말 마디마디 따라
우리 마음 날개 돋쳐
훨훨 혁명 전적지로 날아 갑니다.

화폭에 높이 솟은 할바령 바라 보니
오월의 하늘이 붉게 동틀 무렵
용감한 사람들의 싸우는 름름한 모습……

굼틀거리는 철길을 지켜보는 파괴조
장갑차가 지나자 번개같이 달려 들었답니다.
순식간에 백 메트르 철길 나사못을 뽑았으니
뒤딸아 오는 군용 렬차는 천길 벼랑에 떨어졌으니.

아, 이런 통쾌한 싸움 몇 천 번이였겠습니까
일제의 군용 렬차며 다리를 짓부시며
항일 빨찌산들은 언제나 싸워 이겼으니
우리 목청 돋구어 영광의 노래 드립니다.

밀영지에서 작전 계획을 하시는 김 일성 원수

보시라 동무여, 여기는 이깔나무 하늘을 가리운
희쌰즈거우 밀영지 혁명 근거지—
전투에서 피곤한 대원들은 잠들었는데
귀틀 집에서 잠들지 않은 분 한분 계십니다.

그이는 이름만 들어도 왜적이 치떠는
우리의 수령 김 일성 원수
사랑하는 조국의 지도를 굽어보시고
밤을도와 작전 계획을 하시나니,

그이 안광에서 우리는 력력히 봅니다.
장백의 깊은 골짝에 원쑤들을 섬멸하고
꿈에도 잊지못할 고국으로 개선하는 날을
그이 벌써 예견하신 사회주의 락원을—

보천보의 불'길

김 혜 판

스물두해 전 바로 오늘 밤엔
여울물도 소리없이 흘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을 따라
빨찌산 아저씨들 압록강을 건느시던
바로 그날 밤에는

뼈속마저 저려드는 눈보라에
새'별이 끄리 감추는 밤에도
총가목 틀어쥐고 못내 그리던 곳
조국땅에 발자욱 어리던
바로 그날 밤에는

원쑤들의 가슴팍에 날창을 꽂으려고
3천만의 가슴에 불씨를 안기려고
원수님이 뗴'목 다리에 올라 설 때
동포들의 피눈물이 섞인 압록강은
소리없이 감돌아 흘렀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자리 잡은
어머니땅의 흙냄새는 구수했어요.
조국의 밤은 괴로움에 짓눌린 밤
도탄에 빠진 보천보의 밤은
사무친 원한에 깊어만 갔습니다.

고국땅이 그리워 여러날째
잠못들은 빨찌산 아저씨들도
이밤엔 더욱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초가 한 시간인듯
원수님의 명령만을 기다렸습니다.

6월에도 초나흣날 밤
이윽고 한방의 신호총 소리는
원한에 잠든 조국땅을 깨웠습니다.
순간 보천보의 밤 하늘에는
불'기둥이 솟아 올랐습니다.

일제놈의 주재소며 면사무소는
재가되여 바람에 날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혁명의 불꽃이 옮겨졌습니다.
원수님이 안겨준 바로 그 불씨로써!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강산을 메아리치며 웨칠 때
압록강 여울물도 화답하여
소리치며 웨치며 쏴쏴 흘렀습니다.

《저 불'길을 보시요! 혁명의 불'길을!
　조선 인민은 살아 있습니다.》
원수님이 하신말씀 그날밤의 불'길은
아 지금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천리마의 기세로 세차게 타오릅니다.

보천보 밤하늘에 휘날린 기'발
그 기'발처럼 붉게 타는 넥타이
우리 모두 가슴마다 날리며
혁명의 꽃봉오리로 준비합니다.
원수님의 가르침따라 준비합니다.

빨찌산의 딸

(제2회)

글 조 정 철　　　　그림 오 영 복

그는 다시 죽을 힘을 써서 두어 걸음 앞으로 헤여 나갔다.

등에 업힌 동생은 총 소리가 날때마다 흠칫흠칫 놀래며 바싹 등에 더 달라 붙었다. 발은 눈 속에 빠져 천근 만근으로 무거웠다.

별안간 지척에서 〈땅!〉하는 총성이 울렸다. 이바람에 만금이는 무의식중에 다 흘러 내린 동생을 눈 속에 떨어뜨리였다.

그러나 원쑤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만금이는 더욱 기운을 내여 동생을 다시 등에 업으려 하였다.

《앗!》

만금이는 그만 비통에 찬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동생의 머리에는 시뻘건 선지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그는 이미 숨을 끊었던 것이다.

만금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희생된 동생을 끌어 안고 미친드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왜놈들은 벌써 동리에다 불을 질렀다. 그리고는 미처 달아 나지 못한 늙은이들과 어린 것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혹시 불타는 집안에서 기여 나오는 어린 애가 있기만 하면 놈들은 그를 총창으로 찔러서 불 속에 던졌다.

얼마후 간신히 몸을 피한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모여 들었다. 사람들 앞에는 눈뜨고는 보지 못할 참담한 광경이 벌어졌다. 겨우 숨을 돌린 어떤 애기 어머니가 업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그를 앞으로 돌렸을 때 그것은 아이가 아니라 벼개였던 것이다. 너무도 다급해져서 누어 자던 아이와 벼개를 분간할 수 조차 없었던 그 어머니는 왜놈에게 무참히 죽었을 아이 생각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정경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소리 없이 울었다. 만금이도 울었다. 어머니는 어데로 갔는지 이곳에도 없었다. 다른 곳으로 무사히 피난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쑤에게 죽음을 당하였는지 알길조차 없었다.

왜놈들은 그날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갔다. 사람들이 동리로 다시 찾아 들었을 때는 이미 동리에는 집도 아무 것도 없는 빈 재'더만 남아 있었다.

아직 채 꺼지지 않은 불'길이 여기저기에서 불꽃을 튕기고 있었다. 그 곳에서 풍기는 연기에는 사람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은 당장 들어 앉을 집도 먹을 것도 없어졌다. 사람들은 재'더미가 된 집터로 찾아 가서 타다 남은 어머니와 자식의 시체를 찾아 놓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페허에서 방황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살'길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겨 갔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찾아 조선으로 돌아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곳에 다시 집을 짓고 살아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유격 지구로 들어 가서 끝끝내 왜놈들과 싸워 보겠다고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

만금이의 어머니도 아이 하나를 잃고 오직 남은 만금이를 데리고 유격 지구를 향해 떠나 갔다.

아동단원들

1932년 만금이가 아홉살나는 봄이였다.

만금이는 유격 지구로 들어 간지 얼마 안 있어 아동단 분대장이 되였다. 그는 여기서 더욱 믿음직하고 굳세인 어린 혁명 투사로 무럭무럭 자라 났다.

아동단원들은 비록 나이 어린 혁명 전사들이였지만 그 역할은 자못 컸었다.

아동단원들의 생활은 참으로 규률 있고 조직적이였다.

아동단원들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전원이 모여 조기 체조를 진행하였다.

이것이 끝나면 청소와 세수를 하고 다시 조기회를 가졌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날 할 임무들을 주며 동시에 중요한 통신 보도를 아르켜 주었다.

유격대의 승리의 소식, 적 통치구에 있는 인민들의 반일 투쟁 소식, 적의 야수적 행동들을 보고하는 등의 일들을 진행하였다.

그리고는 분대장이 매개 아동단원들에게 어제 지난 일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날 할 일들을 분공한다.

조기회 때마다 항상 하는 말들은 부모의 말씀은 물론 유격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자는 것이였다.

때로는 비판 시간이 있어 누구는 모범

품행을 가졌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하니 이러이러한 결점은 꼭 고치라고 일일이 따져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 가 조반을 먹고 다시 모여 그날의 일과를 시작한다.

아동단원들은 매일 네 시간씩 학습하였는데 그들이 배우는 것은 이런 것들이였다.

《우리는 왜 못살게 되였는가》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다.》

《쏘련은 피압박 인민의 해방의 구성이다.》

《쏘련은 무산 계급의 조국이다.》

《우리 조선은 반드시 앞날에 독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많이 배우고 또 토론을 한다. 한편 우리 말과 글 그리고 력사, 지리도 학습하였다.

이것이 끝나면 아동단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집들을 찾아 가서 일을 도와 준다. 즉 유격대로 나간 가족들 그리고 남자가 죽었거나 부상 당해서 녀자들만이 일하는 집들을 찾아 가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집의 발김도 매고 풀도 뽑고 물도 길어 주고 아이도 보아 주고 늙은이들에게 재미 있는 이야기와 창가를 해서 위로해 드리기도 한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감격되여 우시는 일도 있다.

어떤 때는 산으로 가서 딸기며 머루 다래 같은 열매를 따다가 유격대에 선물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 운동회를 열어서는 사기를 돋구기도 하고 《경연 대회》를 열어 저마다 재간껏 재주를 부려 서로 즐기는 시간도 가진다.

이러한 일 외에 아동단원들은 중대한 군사적 임무를 맡기도 한다.

혹시 왜놈의 군대가 유격구로 쳐들어올 때면 아동단원들은 스스로 정탐으로 나선다. 여름이면 풀로 온 몸을 가리우고 적의 코앞까지 교묘하게 기여 들어 가서 놈들의 동정을 알아 가지고 온다.

때로는 적들이 머무러 있는 뒤'산으로 가서 나무를 모아 불을 놓고 거기다 작탄을 던지기도 한다. 그리고는 돌격 나팔을 불어댄다. 그러면 왜놈 군대는 요란한 작탄 소리와 돌격 나팔 소리에 질겁을 하여 총알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마구랑 쏘아 갈긴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련이여 일어나는 폭발과 나팔 소리에 적들은 밤새 자지도 못하고 야단법석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 아동단원들은 양포 (사냥 총)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적들이 유격대에게 쫓기여 퇴각을 할 때에는 모아 두었던 탄환깍지에 화약을 재워 가지고는 종이를 틀어 막고 터치였던 것이다. 그러면 적들은 유격대가 일제 사격을 하는 줄만 알고 총까지도 내던지고 달아 나는 것이였다.

이것은 1933년 일이였다.

하루는 적의 《토벌대》가 유격 지구로 쳐들어 왔다. 그러나 놈들은 우리 유격대의 작전에 견디여 내지를 못하고 퇴각하게 되였다. 놈들은 산벼랑 밑을 향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뿔뿔이 도망쳤다. 이때 아동단원들은 산우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바위'돌을 쾅쾅 굴리여 몇 놈은 죽이고 나머지는 총까지 던지고 달아 나게 한 사실까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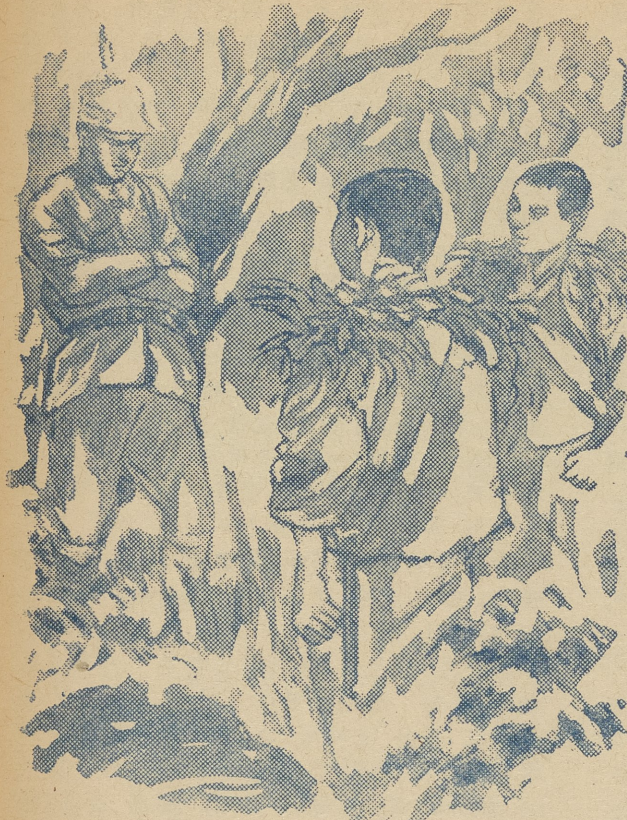
그리고 또 아동단원들은 비밀 련락하는 일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비밀 편지를 풀'잎에 싸기도 하고 혹은 의복 틈에 끼워 가지고 메뚜기나 잠자리잡이 흉내를 내면서 이편과 저편 사이를 련락하기도 하였다.

왜놈들이 제아무리 엄중한 경계를 편다하여도 우리 아동단원들의 이런 교묘한 행동에는 속아 넘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동단원들은 이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유격대 지휘부의 위임을 맡고 보초선을 검열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더욱 경각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특히 제 1선의 보초선은 더 엄중히 검열하였다. 아동단원들은 소리를 죽여 가며 살금살금 보초에게 기여 간다. 그리고는 만일 보초가 제 자리에 있지 않거나 또는 조는 것을 보기만 하면 당장 보초 앞에 나서 충고를 하는 것이다.

《아저씨 옳지 못해요! 만약 적이 쳐들어 오면 첫째로 아저씨의 생명이 위험하고 둘째로는 전체 인민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아요? 아저씨! 잘 생각하여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렇게 엄격히 지적하는 아동단원 앞에는 아무리 어른이라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아동단은 바로 공청의 지도를 받았다.

아침에 서로 만나면 아동단원은 한 손을 머리 우로 높이 들어

《준비!》

하고 인사한다. 그러면 다른 아동단원 역시 한 손을 높이 들고

《항상!》

하고 대답한다. 즉 항상 준비가 되여 있다는 뜻이다.

아동단원들은 항상 단단한 나무로 깎은 약 반자 가량 되는 몽치를 한편 끝에 구멍을 뚫러 끈을 꿰여 매고 다녔다.

이것은 아동단원들의 귀중한 무기이다.

이러한 아동단원들의 생활은 언제나 유쾌하고 명랑하였다.

그들은 항상 위생에 주의하여 일치하게 머리를 깎고 이를 잘 닦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다.

이러한 하루 일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저녁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는 그날 하루 일을 총화 짓고 또 래일 할 일들을 의논하고 나서 정치 시사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들을 하였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오락회를 열어 연극도 놀고 노래도 부르며 재미 있게 놀았다. 이처럼 아동단원들은 명랑하고 유쾌하고 천진스러웠다.

비록 생활은 곤난하고 부모까지 없는 아동단원들도 많지만 아동단원들은 언제나 씩씩하며 자랑할만 하였다.

아동단원들은 열심히 학습하며 일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용감하고 대담하였다.

유격대가 일본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 아동단원들은 유격대를 따라 다니며 련락도 해주고 탄환도 날라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아동단원들은 전투하는 가운데서 전술과 사격술을 배우며 싸울 때의 동작과 몸 가짐을 배웠다.

아동단원들은 자기 동무를 사랑하였다.

아무리 갑자기 왜놈들이 습격 해 온다 하더라도 병중에 있는 단원이 있으면 곧 전체 단원들이 동원하여 그를 안전 지대로 거들어다 보호하였다.

때로는 왜놈의 대포알이 가까이에 떨어져 옆의 동무가 흙 속에 묻히면 총알이 비'발치듯 하는 위급한 속에서라도 그 동무를 구원해 내군 하였다.

아동단원들은 적에게 붙잡힌 때라도 항복하지 않았다.

1934년에 연길현 왕우거우라는 데서 유격 전사 김 택규라는 사람의 여덟살난 딸이 왜놈에게 잡혀 갔다. 왜놈 경찰은 그 소녀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얼리기도 하면서 취조를 하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너희 같은 놈들과는 말도 하기 싫다!》

하고 말할 뿐이였다.

취조하던 경부놈은 무슨 까닭으로 말하기 싫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똑똑히 말하였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말을 한단 말인가》 이 대답을 들은 경관들은 악이 올라 더욱 혹독한 매질을 하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울지도 않고 오히려 매서운 눈초리로 그 놈들을 흘겨 볼 뿐이였다.

아무리 때리며 물어도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안 그 놈들은 다시 얼리기 시작하였다.

《얘 너희들은 노래를 잘 한다는데 어디 여기서 창가를 한 번 해봐 응?》

아무리 매질을 하며 문초를 해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므로 혹시 창가를 시키면 그 속에서 무엇을 알아 낼가 했던 것이다.

《창가는 할테다!》

하고 선듯 대답하고는 소녀는 서슴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노래의 뜻은 이러했다.

곳곳에 쓰러지는 개같은 일본놈
그대신 나날이 높아 가는 혁명의 기세
우리의 혁명 기세를 제국주의 개들은
어찌하지 못한다.

이것은 일본놈들의 속을 박 쑤시는 듯한 그런 노래였다.

경부놈은 노래를 그만두라고 미친듯이 고아 댔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만두기는 커녕 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경부놈은 칼을 쭉 뽑더니 그 소녀의 목을 겨누며 창가를 끊지 않으면 당장 죽인다고 을러 댔다.

소녀는 죽일테면 죽여라 하고 그냥 노래를 계속했다. 악에 바친 경부놈은 미친듯이 칼을 후려 소녀의 목을 잘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동단이 하는 일 중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유희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유격대원들을 위안하는 일이였다.

그들은 가지가지의 노래와 연극 그리고 춤으로써 유격대원들을 위로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적과 싸우기에 무척 피곤했다가도 아동단의 유희대원들의 노래와 연극과 춤을 보고 들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웃고 즐길 수 가 있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명랑하게 노래하고 춤추워 드리면 유격대원들은 금시 피곤한 몸도 풀리고 더욱 감격되여 용기를 내군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동단 유희대원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웨치는 것이였다.

《우리는 아저씨들의 후비대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저씨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부모의 원쑤를 갚아 주실 이는 오직 아저씨들 뿐입니다. 우리도 자라면 아저씨들의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용감히 싸워 주십시요!》

아동단원들의 이러한 웨침에 유격대원들은 적에 대한 복쑤심에 주먹을 부르쥐군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격대원들은 아동단원들을 무척 사랑하였다. 어떤 때 적을 무찌르고 돌아 올때면 그들은 아동단원들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즉 맛 있는 음식도 가져 왔고 옷감 같은 것도 많이 가져다 주었다.

유희대원들이 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그들은 때때로 군중들에게 해설 사업도 진행하였다.

당시 만주에는 "구국군"이니 "자위군"이니 "산림대"이니 하는 반일 무장 단체들이 있었다.

이 단체들은 일제 앞잡이 놈들의 공산당을 반대하는 책동과 교묘한 악선전에 넘어 가서 한 때 조선 사람을 죽인 일까지 있었다.

즉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하자는 것이였다. 그렇게된 원인은 일본놈들이 저희가 만주를 점령한 까닭은 오직 조선 공산당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하여 만주에 와 있는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들을 리간시켜 서로 해하고 싸우도록 만든 때문이였다.

이같이 간악한 왜놈의 거짓 선전에 속아 넘어 간 일부 중국 사람들은 일본이 만주로 처들어 온 것은 정말 만주에 조선

사람들이 있는 탓이라고 믿고 조선 사람이면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우리 유격대를 원쑤처럼 여기고 해하려고 하였다. 그때 우리 유격대는 조직된지 그리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세력은 크지 못한 때였다.

이때 우리 아동단원들은 그런 중국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선전과 해설 사업을 시작하였다. 모르고 속아 넘어 간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동단원들은 유희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백여리가 넘는 사도만 퉁치영칙에 찾아간 일이 있었다.

이들은 험한 산'골 지대의 길을 며칠씩 고생과 모험을 해가며 산림 지대 《구국군》들을 찾아 갔다.

만금이도 바로 그런 유희대원이 되여 활동하였다.

이런 낯선 고장으로 위문을 가면 《구국군》들은 무슨 큰 변이나 난듯이 떠들고 야단을 쳤다.

그러나 정작 찾아 온 것이 모두 어린애들 뿐이니까 그들은 그제야 안심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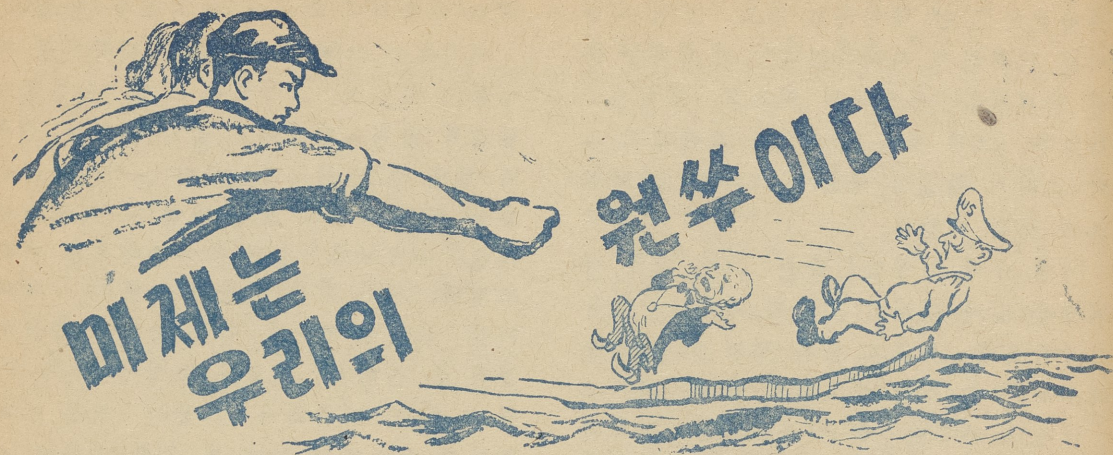
우리 어린 선전대원들은 중국 군인들의 집들을 방문하였다. 들어가 보면 모두 사람의생활이 아니였다.

옷을 오래 동안 빨지 못해 때가 올라 거울처럼 번들거렸고 그의 얼굴들은 그와 반대로 해쓱하니 희여서 피'기조차 없었다.

거기에는 그들이 붙들어다 가두어둔 사람들도 있었다. 그중에는 조선 사람들도 몇명씩 섞여 있었다. 갇히여 있는 곳은 더 말할 것 없이 더러웠다. 피비린내와 고름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헝겊으로 싸맨 귀에서와 상처난 가슴에서는 끔찍스럽게 피와 고름이 흘러 내렸다. 왜냐하면 그들을 잡아온 이곳 중국 사람들이 잡혀 온 사람의 부모나 동생이 돈을 가져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를 베여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돈을 낼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를 대라고 하여 불쇠꼬챙이로 그들의 가슴을 지졌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유희대원들은 딴 세상에나 온듯 하였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환경과 또는 함께 지내온 사람들에게 비하면 모두가 딴 세상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마치 옛'이야기에서 듣던 무서운 지옥 속의 사람들 같았다.

그러나 우리 유희대원들은 태연스럽게 예정대로 해설 사업, 위안 공연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오늘도 격분한 마음으로 《미군 나가라!》고 웨친다.

거리의 스피카에서, 출판물들에서 이 목소리는 날마다 높아 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제가 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준 악독한 원쑤이기 때문이다.

해방후 일제를 대신하여 조국의 남쪽 땅에 기여든 미제는 첫날부터 남반부 인민들을 여지 없이 탄압하고 학살하였다.

놈들은 일시적으로 분렬된 조국을 영원히 갈라 놓고 조국의 절반땅을 자기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악하였다.

조선 인민은 예로부터 하나이며 우리는 언제나 평화로운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조국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념원도 미제는 끝끝내 가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이에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3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은 조선 인민에게 가진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의 거리와 마을은 모두 원쑤들의 폭격에 재'더미로 되였다.

한창 학교갈 나이에 거리에서 구두를 닦아 주고 겨우 입에 풀칠해 가는 불쌍한 남반부 소년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령도를 받들고 미제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용감히 싸워 승리하였다.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 땅에서 전쟁의 불을 끈지도 벌써 6년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조선은 아직 통일 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불행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우리의 불행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날마다 남조선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있다.

660만을 넘는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수 백만을 헤아리는 절량 농민들이 기아에 신음하며 수십만의 고아들이 길'가에서 굶주리며 병들어 죽어 가고 있다.

어찌 그뿐이랴!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 무리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피땀을 짜내다 못해 오늘은 그것도 부족하여 그들을 머나먼 미국의 자본가와 농장주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인가!

이 참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녘 땅에서 매일 매시각 벌러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최근 전쟁 나발을 더 요란히 불어대면서 새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원쑤놈들이 조선 인민을 더 큰 불행에로 몰아 넣기 위한 흉책이다.

그러나 놈들은 바로 6년전 우리 조선 인민에게 당한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땅도 하늘도 모두가 타버린듯 했던 이 땅에서 조선 인민은 전후 짧은 기간에 전쟁의 피해를 완전히 가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천리마의 기세로 오직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샤만호를 타고 온 해적들이나 오늘 남반부에 기여든 그 후손들이 보았던 조선과는 전혀 다른 영웅 조선의 새로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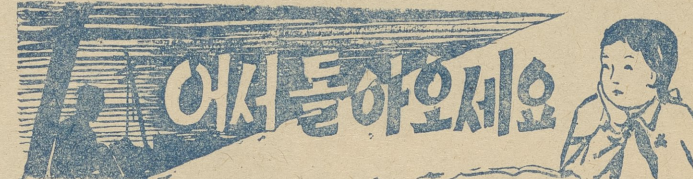
옛날도 조선 인민을 정복하지 못하였거늘 어찌 오늘의 영웅 조선 인민을 건드릴 수 있으랴!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히 웨친다.

전쟁의 어려운 고비도 극복하고 오늘은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다져 나가는 조선 인민은 반드시 미제 침략자들을 조국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이라고.

그러나 만일 원쑤들이 또다시 어리석은 불장난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놈들에게 백배 천배의 타격을 줄것이다.

미제는 조국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

"동시"

황남 삼천군 궁홍리

김 광진

저 어두운 남녘 하늘 밑에는
그리운 아버지가 계서요
8년전 원쑤의 총칼 앞에
끌려간 아버지가 계서요

그렇지만 아버진
동무들과 어깨겯고 싸우겠죠,
미국에 노예로 팔려는
원쑤의 음모를 짓못겠죠.

학교'길 재'등에 오르면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요
오늘도 저 하늘 밑에서
아버진 헐벗고 굶겠지요.

아담한 문화 주택에서
아버지와 행복히 살고 싶어요
따뜻한 공화국 품안으로
어서 돌아 오세요 아버지!

조선 인민은 승리하였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바로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드디여 리승만 역도를 시켜 전쟁의 불을 질렀다.

그러나 원쑤들은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 앞에 끝내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

용감한 우리 인민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과의 협동 작전 밑에 가는 곳마다에서 원쑤들을 족쳐 부셨다.

가렬했던 3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아래의 사진들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말해 주는 기록들이다.

←

1951년 2월 미제 원쑤들이 원주 계선에 침입해 왔을 때다. 이곳 가막봉 고지 방어 임무를 받은 분대장 강 호영 형님은 수명의 대원들과 함께 기여드는 적 한 개 련대와 마주 싸우다 팔다리에 전부 부상을 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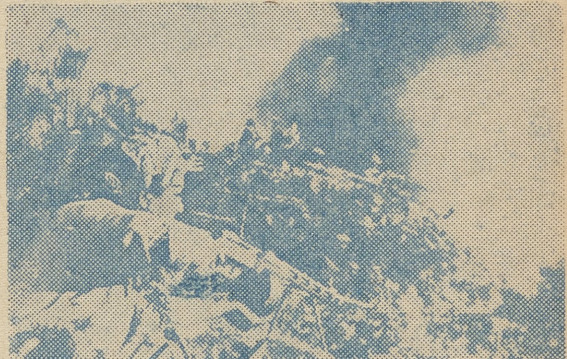
복쑤에 불타는 강 호영 형님은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들의 무리 속에 굴러 들어 가 자폭함으로써 적에게 무리 죽음을 주고 둘도 없는 목숨을 당과 조국을 위해 바쳤다.

→

1951년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에 원쑤들은 1,211고지에 하루 평균 3만 여발의 폭탄과 포탄을 퍼 부으면서 연 431차에 걸쳐 공격해 왔다.

그러나 인민군 용사들은 한걸음도 물러 서지 않고 매번 적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다. 그리하여 놈들은 이 골짜기를 함정'골이라고까지 불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의 마뜨로쏘브 리 수복 영웅을 비롯하여 19명의 공화국 영웅이 나오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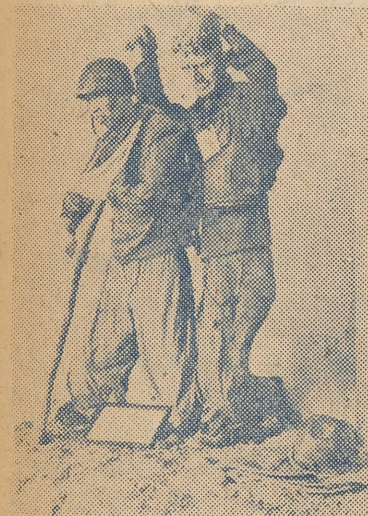
←

동부 전선 린제로부터 가리봉 일선에서 아군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던 적들에게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은 긴밀한 협동 동작으로 적들을 완전히 포위 섬멸하였다.

←

1953년 6월, 351고지 전투가 가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다. 이곳 전선 지구 인민들은 직접 화선에 식량과 탄약을 운반하면서 전투 승리를 끝까지 도왔다.

→

용감한 우리 인민군 야간 습격조원들은 전선이 38선 일대에 고착되면서부터 적 진지들에 대한 강력한 습격 행동을 진행하고 적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

미제 고용병들과 리 승만 괴뢰군들은 전투마다에서 무리 죽음을 당하였다. 인민군 용사들이 쏘는 탄알은 놈들을 사정 없이 쓸어 눕히였다. 겁에 질린 놈들은 꼴 좋게 손을 들고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 길만이 살'길이였기 때문이다.

→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 원쑤들은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였다.

놈들은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미군 39만 7천여명을 비롯하여 리 승만 괴뢰군과 추종 국가 군대들을 합하여 모두 109만 3천 839명이 살상 포로되였다. 그 밖에 손실당한 전투 기재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우리 인민군 용사들이 로획한 전리품만 하드라도 비행기 11대와 땅크 374대, 자동차 9,239대, 각종 포 6,321문에 달한다.

우리들은 미제가 우리 조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킨 6월 25일 《미제 반대 투쟁의 날》 9주년을 맞이한다. 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인 리 승만 도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그들의 통치 밑에서 무서운 공포와 빈궁과 학대와 죽음을 당하고 있는 남조선 소년들에 대한 동정을 금할 길이 없다.

최 주 성 글
허 능 택 그림

오늘 공화국 북반부 소년들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날과 달을 따라 더욱 더 행복하여 가는 생활을 노래하고 있으나 우리와 한 조상의 피를 이은 다 같은 조선의 꽃봉오리건만 남조선 소년들은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들인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짧은 글에서 남조선 소년들이 겪고 있는 참을 수 없는 불행의 가지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한다.

우선 남조선 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보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동양에서 처음으로 이미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누구나 다 당과 국가의 혜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였지만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수업료요, 사친회비요, 실습비요, 입학금이요 하고 수십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긁어 들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비교적 괜찮은 집 소년들이 아니고서는 학교에 못간다. 이렇게 비교적 형편이 좋아서 《국민 학교》에라도 가는 소년들이라고 하드라도 그들의 생활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으리만큼 불쌍하다.

서울에서 나오던 《경향 신문》이 금년 1월 2일과 3일 지상에서 강원도 명주군(옛날 강릉군인데 바로 38도선 이남에 있다.) 왕산면 산울림 국민 학교 소년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남조선 소년들의 참혹한 처지를 잘 알 수 있다. 《경향 신문》 기자가 이 학교를 찾아 간 것은 작년 12월 말이였다. 공화국 북반부 같으면 추수해 들인 곡식들이 협동 조합 창고와 집집마다에 가득히 쌓여 있을 때이였으나 이 학교 학생들은 칡뿌리, 도토리, 산나물 등으로 주린 창자를 채우고 있었으며 이것 마저 떨어져서 250명 소년중 30~40%는 배가 고파 학교에 나오지 못하였다. 《점심밥을 가지고 학교에 온다는 것은 먼 나라의 전설처럼 되였다》고 하면서 이 학교 소년들은 점심이란 말조차 모른다고 기자는 너무나도 참혹한 형편을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굶주림으로 하여 소년들은 모두 뼈와 가죽이 한데 붙다 싶이 앙상하게 되였으며 영양 부족으로 눈병을 비롯한 각종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때는 한창 추운 12월이라 태백산맥을 타고 불어 오는 바람은 사람들의 살을 베이는듯 하였으나 학생들은 여름 옷과 맨발로 떨고 있었다고 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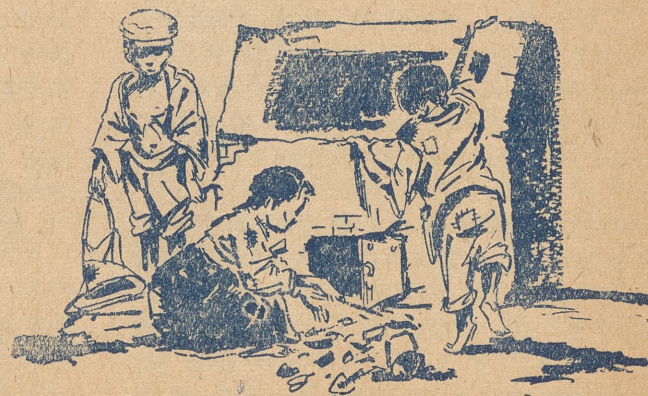
《대한이 되여도 학생들은 반수 이상이 맨발이다. 그 뿐인가, 내복도 없이 여름 반소매 샤쯔만 하나 걸친 애도 있고 그냥 여름 내복 하나만 입은 생도도 얼마든지 있다》

남조선 학생 소년들은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있으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갖은 명목을 부쳐 이들에게서 돈을 짜 낸다. 이리하여 많은 소년들은 하구 많은 학비와 공납금을 감당할 도리가 없어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만다. 충청남도 공주군 금벽 《국민 학교》에서 1958년에 졸업생이 불과 6 명 밖에 안 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써도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국민 학교》조차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서 몰려나는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학교에서 쫓겨 난 소년들 가운데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원망 저주하다가 자살하는 수가 적지 않다.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 《국민 학교》 5학년생 리 인수(13세) 소년은 학교 성적이 최우등이 였으나 수업료를 바치지 못하여 금년 2월 학교에서 쫓겨났다. 일'자리를 잃고 밥도 먹지 못하고 기진 맥진하여 누워 있는 부모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 한댔자 도리여 걱정만 드리게 될 것이 뻔하였다. 리 인수 소년은 혼자서 궁리를 다해 보았으나 많은 수업료를 마련할 도리가 없었다. 어린 소년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 때문에 마음대로 공부도 못하고 밥도 굶게 된 것을 비관하여 학교 뒤'산에서 목을 매여 자살하였다. 리 인수 소년의 이 눈물겨운 마지막을 목격한 동교 리 청길(16세) 소년도 리 인수 소년의 환경과 비슷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여 바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역시 목을 매여 자살하였다.(《조선 일보》 1959년 2월 22일)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인가! 날씨는 따뜻하고 들판은 기름져서 곡식이 잘 되고 땅 속에는 가지가지 자원들이 무진장하며 3면에 둘러싸인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떠도는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 땅 남조선에서 우리의 귀여운 꽃봉오리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압박과 착취에 견디다 못하여 활짝 피여 보지도 못한 채 애처로이 자기의 목숨까지 끊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짜내면서도 소년들의 학업에 필요한 학교들이나 시설들을 갖추어 주기는 커녕 있던 것들마저 파괴하고 있다.

그 실례로 《경향 신문》은 우에 말한 《산울림 국민 학교》에는 《책상, 걸상, 풍금,

패도 아무 것도 없었다》고 사실을 숨기지 못하였으며 역시 서울에서 나오는 《조선 일보》는 이따위 학교나마 남조선에는 1959년 3월 현재로 무려 2만 5,000개《국민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 학교》 소년들의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니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다는 것은 꿈에 떡 맛 보는 격으로 어려운 일이다. 남조선에는 3월이 학교 졸업기이고 4월이 진학기인데 금년 3월 《국민 학교》 졸업생 중 중학교에 간 소년의 비률을 보면 전라남도는 8%, 전라북도 9%, 강원도 10%, 경상북도, 충청남북도가 11% 등으로 극히 적다. 이들은 대체로 지주, 부농, 자본가나 고급 관리의 아들 딸들이고 로동자, 농민, 보통 사무원들의 아들 딸들은 감히 마음도 못 가진다. 공부하고 싶은 욕망으로 중학교에 들어 간다고 하드라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강요하는 하구 많은 공납금을 물 도리가 없어 학교에서 쫓겨난다.

형편이 좋은 편이여서 《국민 학교》에라도 가는 소년들의 처지가 이러할 때 그만 못한 소년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소년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남조선 신문들의 보도에 의하드라도 남조선에는 20만 명의 고아들을 비롯하여 생활고에 견디다 못하여 거리에 가져다 버린 어린이들, 주림에 지쳐 자살한 근로자들과 미군 야수들에게 원한의 죽음을 당한 어머니들이 남긴 소년 등 수십 만 명의 류랑 소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 소년들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품안에서 행복하게 뛰놀며 배움에 열중할 때 이들 남조선의 류랑 소년들은 바람 부는 날이나 눈비 나리는 날이나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에게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도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집집마다의 문을 두드리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옷소매에 매달려 애처로운 목소리로 구걸하고 있다.

《남조선의 아동들! 새 세대는 쓰레기통 주위에서 자라고 있다》고 인도 신문의 한 기자가 한숨을 금치 못한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들 수십만 명의 류랑 고아들을 포함하여 남조선에서는 100만 명을 넘는 소년들이 초등 학교 문전에도 가 보지 못하고 20 세기의 눈뜬 장님으로 되고 있다.(남조선《세계 통신》 1957년 11월 7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둥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에서 우리 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결코 이것만이 아니다.

선조 때부터 노예 장사로 돈을 모아 온 미제 승냥이들과 그의 앞잡이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소년들을 머나 먼 외국에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 먹고 있다. 정전 직후부터 시작하여 1956년 4월까지에 미국 야수들과 리 승만 매국 도당은 944 명의 남조선 소년들을 《양자》라는 구실 밑에 미국으로 끌고 갔다가 곧 멕시코의 노예 시장에다 팔아 먹었다.(《대한 년감》 1958년판) 사람의 매매로 돈 주머니가 늘어나는데 재미를 부친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은 그후도 계속하여 107명의 남조선 소년들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의 농장주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으며 최근 다시 리 승만 도당은 1천 176 명의 남조선 소년들을 팔아 넘길 데 대한 계약을 미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다고 남조선 출판물들은 전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의 격분을 억제치 못하게 하는 것은 미국 야수들과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남조선 소년들이 무참히 학살 당하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 사실이다. 사람잡이를 스포츠처럼 여기는 미국 승냥이 무리들은 남조선 인민들이 그처럼 참혹한 굶주림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사랑하는 소년들을 함부로 학살하고 있다.

1956년 12월 15일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덕포리 앞 강변에서 오리 사냥을 하다가 실패한 미군 2명은 오리를 못잡은 분풀이로 강 건너에서 놀고 있던 소년들을 향해 렵총을 발사하여 황 백관, 박 동주 두 소년에게 중상을 입혔다. 인천시 숭의동에 사는 조 병길 소년은 저수지에서 목욕 하다가 미제 야수들의 총에 맞아 붉은 피를 쏟고 죽었다. 이날 저수지에서 떼를 지어 목욕하는 조선 소년들에게 돌팔매질을 하던 미군 야수들은 돌을 피하여 흩어져 가는 소년들을 목표로 사격 련습 삼아 총을 함부로 쏘았다. 조 병길 소년은 이 총알에 맞아 쓰러졌다.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 사는 조선 소년 한 기평은 집 앞 큰 길에서 미군 땅크에 깔려 붉은 피를 쏟은 채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집 앞에서 천진란만하게 뛰놀고 있는 조선 소년들을 향해 미친듯이 땅크를 몰고 든 야수들은 한 기평 소년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땅크 밑에 깔려 넘어 가는 것을 보고 멋진 운동 경기나 하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며 손'벽을 쳐가면서 기뻐 날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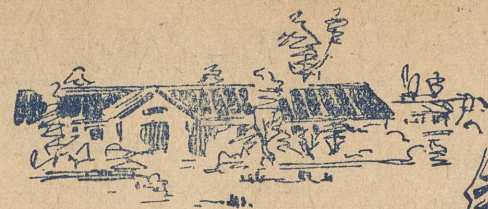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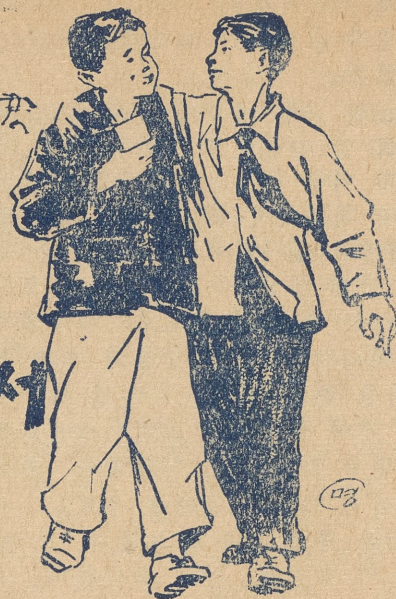
남조선 소년들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날에 날마다 당하고 있다.

어찌 우리의 가슴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대한 분노와 저주의 불'길이 타번지지 않겠는가!

조선의 꽃봉오리며 이 나라 장래 주인들인 소년들이 왜 자기 조국 땅에서 미군 야수들과 그의 앞잡이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남조선 소년들이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모든 불행을 들씌우고 있는 미제가 물러가야 한다. 우리들은 불행과 죽음을 겪고 있는 남조선 소년들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강토 안에서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공부하며 생활할 날이 하루 속히 오도록 하기 위하여 학업과 소년단 사업에 열성을 다하자.

얼마전 우리 분단에는 꼬마 상점을 설치했습니다. 상점에는 일체 학용품들이 진렬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상점 주인은 없습니다. 물품을 사고 싶은 동무는 어느 때든지 물품을 내여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은 물품을 가진 다음날에 저금 통에 넣습니다.

우리는 물품을 가지고도 돈을 내지 않는 동무가 나타나지 않을가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오늘 까지도 그런 동무는 없었습니다. 꼬마 상점은 계속 잘 되여 가고 있습니다.

합북 연사 10중 학교 대
1분단 최 철순

반장의 일기중에서

명북 선천 제 2 중학교 데 10분단 2반

반장 김 명훈

1958년 9월 11일

오늘 반 대항 축구 시합에서 우리 2반이 실패한 것은 새로 전학해 온 명복이 때문이다. 내가 어리석었다. 반 동무들은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를 선수로 내보내는 것을 반대 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너무 고집을 쓰기에 반의 명예는 생각지 않고 시합에 내보냈던 것이다.

명복이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끌 문을 지키던 아이가 뽈이 금방 굴러 들어 오는데 운동장에서 훌쩍 뛰여 나가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물론 동무들이 이러구 저러구 시비하니까 화가 나긴 했겠지만…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명복이 같은 아이가 하필 우리 반에 전학해 왔담…참 걱정'거리다.

1958년 9월 21일

요사이 반 동무들은 명복이를 자유주의가 심한 아이라고 멀리하고 있다. 하긴 반장인 나도 그가 반의 명예를 계속 더럽히는 걸 생각하면 말도 하기 싫다. 명복이 자신도 동무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고 혼자 떨어져서 마음대로 행동한다. 요즘에 와선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이 아이 저 아이와 싸움질 하기가 일수고 방과후 작업도 계속 뺑소니 치고 있다. 학과 성적은 분단에서도 제일 뒤떨어졌는데 반 동무들이 공부할 때도 같이 어울리지 않고 공부 시간에도 장난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려구 그러는지 한심한 일이다. 반 동무들이 아무리 이야기 해줘도 들을려구 하지 않으니 어떻게 고쳐 주어야 할지…

1958년 10월 5일

오늘은 우리 반의 제의로 명복이를 충고 주는 분단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우리 반 동무들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충고해 주었다. 그런데 김 문제가 명복이는 옷차림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빨아 달래라고 하였을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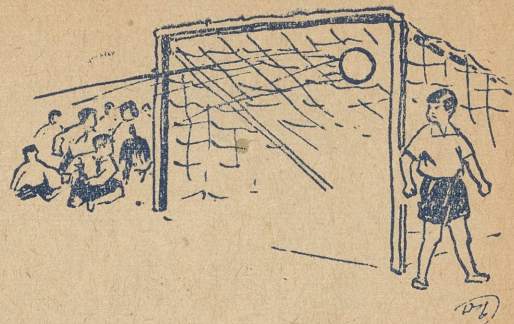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있던 명복이는 《나도 어머니가 계실 때는 너처럼 깨끗이 하고 다녔어》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내쏘고는 교실에서 휙 나가 버렸다.

동무들은 모두 명복이에게 가정 사정이 있는 모양이라고 웅성웅성 이야기 하였다.

명복이의 말을 듣고난 나는 얼굴이 뜨거워 왔다. 명복이가 새로 전학해 온 날 우리 반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명복이는 가정 사정으로 학과 성적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과 반에서 특별히 잘 도와 줘야겠다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되살아 올랐다.

나는 그 순간 〈내게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더구나 반장으로서… 항일 투사들은 자기 동지를 어떻게 사랑했던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집으로 돌아 가던 길에 나는 명복이네 집에 들렸다. 우리 마을에서도 약 5리 가량떨어져 있는 광산 마을까지 나는 어떻게 갔는지 모른다.

내가 찾아 갔을 때 명복이는 방에 혼자 앉아서 퇴근하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오늘 명복이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였다.

명복이 어머니는 일찌기 병으로 돌아 가시고 그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집일로 해서 방과후 작

업때면 슬그머니 빠지군 하였던 것이다. 이런 가정 사정과 함께 몸이 약한 탓으로 명복이의 학과 성적은 좋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반 동무들에게 이야기 하고 명복이를 적극 도와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1958년 10월 6일

아침 일찌기 학교에 간 나는 반 동무들을 모아 놓고 명복이의 가정 사정을 살살이 이야기 하였다.

반 동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그를 도와 주지 못한 탓이야》라고들 이야기 하였다.

1958년 11월 5일

요사이 명복이는 나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였다. 명복이는 내가 하자는 일이면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다.

나는 명복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뒤떨어진 학습을 도와 주어야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학교에 와서는 한자리에 앉아 공부하며 방과 후에는 집에 돌아 가서 열심히 도와 주었다. 명복이가 제일 뒤떨어진 과목은 국어과이다.

요사이엔 우리 집에 데려다 그의 뒤떨어진 국어 공부를 도와 주었더니 아주 성과가 좋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나는 명복이의 취미가 무엇인지 알았다.

명복이는 공부하다 쉬는 짬이면 늘 그

림 그리군 하였는데 그 솜씨는 아주 훌륭한 것이였다. 그 뿐 아니라 그는 노래도 곧잘 불렀다. 그는 참으로 재간이 많은 동무이다.

1958년 12월 2일

요사이 명복이는 집단을 믿고 집단을 위해 모든 열성을 다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명복이의 취미를 발견하였을 때 곧 분단에다 이야기 하였던 것이다. 그랬더니 분단에서는 그에게 벽보 편집 사업을 맡기였다.

명복이의 만화와 그림들이 벽보에 나붙기 시작하였다.

오늘 벽보 앞에 모여섰던 분단 동무들은 모두 명복이의 재간 있는 솜씨를 칭찬하였다.

반 동무들은 유희, 오락, 체육 경기들을 할 때면 의례히 명복이를 내세우려 하였다.

어세 분단에서의 반별 경연 대회에서 명복이는 훌륭하게 노래를 불러 좋은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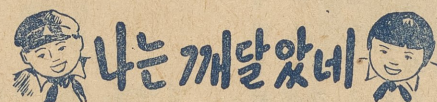
명복이가 이렇게 집단의 사랑을 받게된 것을 우리 반 동무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 요즘엔 반 동무들이 모두 학습을 도와 나섰다.

명복이도 집단의 사랑 속에 활기를 띠우고 있다. 여지껏 흐리터분 하던 우리 반 생활은 차츰 명랑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휩싸여 가고 있다. 참으로 기쁘다.

1959년 4월 25일

오늘 대 모임에서 나는 모범 반장으로 대 위원회의 표창을 받았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특히 명복이를 이번 학기에 우등의 성적을 쟁취하도록 잘 도와 주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동무들에게 명복이와 나와의 아름다운 우정을 본 받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는 오늘 그 순간처럼 기뻐해 본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 올 때 명복이는 나의 곁으로 달려 와서 《명훈아 고마워 너나 우리 반 동무들은 참 좋은 동무들이야, 내가 우등으로 공부하게 된 것도 다 이렇게 좋은 동무들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 하였다. 나와 명복이는 서로 기쁜 웃음을 띄우고 손을 잡고 말 없이 걸었다.

신문 한 장 보았지요
공중 도덕 잘 지키자!
씌여 있는 《소년 신문》…

나는요 생각했네
공중 도덕 잘 지켰나
곰곰히 생각했네.

지난번 일요일 날
식수 사업 끝내고요
집으로 돌아 올 때
수도'물에 발 씻은 일.

다시 한 번 생각했네
깨끗한 도로에
가래침 뱉은 일.

또 한 번 생각했네
영호와 장난하고 목이 마를 때
수도에 입을 대고 물 마신 일.

가만히 생각하니
공중 도덕 안 지킨 일
많기도 하네—

나는 다짐했네
굳게 굳게 다짐했네
—소년단원 영예 위해
공중 도덕 잘 지키자—

함북도 청진시 제 7 중학교
3학년 2반 김 정기

어떻게 문학작품을 읽으며 배울가요?

신 영 길

나는 어느 초중 문학 크루쇼크 모임에 참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한 설야 선생님이 쓰신 《아동 혁명단》을 가지고 감상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년단원 동무들이 저마다 《아동 혁명단》을 읽고난 감상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떤 동무는 금철 소년의 용감한 모습을 그린 장면을 따로 외다 싶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 다른 동무는 김 일성 원수와 함께 아동 단원들이 사격 련습을 하던 장면을 세세히 이야기 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무기는 머리이다. 우리는 이것에서 먼저 왜놈들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공부하고 훈련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 이길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은 원쑤를 때려 부실려면 먼저 원쑤를 미워할 줄 아는 사상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김 동수 동무는 《아동 혁명단》의 내용을 하나도 헛 갈리지 않고 차근 차근 이야기 하면서 김 일성 원수님은 그전부터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몇개 실례들을 따로 추려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이 동무는 금철 소년이 아동단에 들어 오기전부터 시작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의 생활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쑤를 미워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눈앞에 보는듯이 재미 있게 잘 그려졌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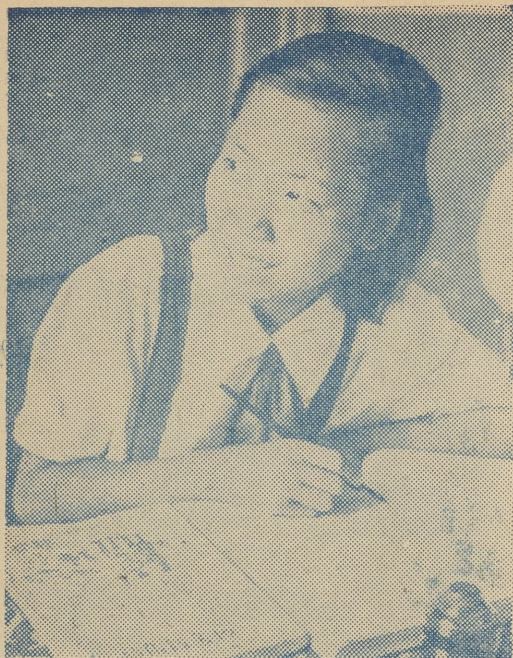
나는 그 모임에서 소년단원 동무들이 《아동 혁명단》을 모두 읽었고 작품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며 작품을 통하여 배운 것이 많았고 앞으로 그 주인공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토론한 동무들에게 《아동 혁명단》을 어떻게 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작품을 나흘을 넘지 않고 읽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근 차근 내용을 더듬으면서 읽었고 특히 자기 마음에 드는 곳과 내용 문장은 독서 일지에다 적어 두었으며 다 읽고 나서는 자기가 느낀 점과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적었습니다.

또한 다 읽고 나서는 다시 한번 작품 내용을 머리 속에 정리한 점입니다.

김 동수 동무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김 일성 원수가 아동 단원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로 적은 것과 (금철 소년은 어떻게 빨찌산에 들어 오게 되였으며 아동단 생활은 어떠하였는가)하는 제목으로 작문까지 쓴 것을 알았습니다.

동무들! 나는 이 학교 문학 크루쇼크 모임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이 모임에 참가한 동무들은 문학 작품을 준비 있게 읽었으며 또 그 작품에서 배울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작가가 독자들에게 주려고 한 귀중한것 중 몇가지를 얻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읽고 작품을 분석하고 정리하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무들은 많은 문학 작품을 읽었을 것입니다. 소설, 동화, 동시, 동요, 우화등 외에 아버지나 오빠 누나들의 책장에 있는 성인 작품들도 꺼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 작품을 읽을 때는 잘 리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았을 것이며 그리 재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인 작품들의 내용들은 어른들의 생활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문학 작품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좋은 글 또한 자기 나이와 지식에 알맞는 작품을 골라 읽는 것이 주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선생님이 좋다고 소개하는 작품 또는 민청에서 좋다고 소개하는 작품을 반드시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품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읽다가는 내던지고 이것 저것 조금씩 읽고 내버린다든가 띄염 띄염 읽는 버릇은 좋지 못합니다.

단편 소설 같은 것은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정신을 가다듬어 한 두 시간씩 계속 읽어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편 소설 같은 것은 어떤 사건이 끝나는 곳에서 일단 쉬였다가 그 이튿날 계속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편 소설이나 동화, 우화, 시, 동요와 같은 것은 단꺼번에 읽는 것이 그 내용을 알고 분석하기에 편리합니다.

이렇게 작품을 읽고 나면 대체로 내용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작가가 무엇을 독자들에게 주려고 노력하였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평남 성천군 회전 중학교
2년 박 계 월

우리 학교 대에서는 매개 분단에 얻은 물품을 넣는 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함 속에는 소년단원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얻은 물건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물품 잃은 사람들은 함 속에서 찾아갑니다.

이 함을 만든 1주일 후에 총화해 보니까 돈, 연필, 기타, 학용품 등 수다한 물품을 얻어서 임자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 작품의 줄거리를 옳게 파악하는 문제와 사건이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 벌려진 일인가를 알아야만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그 인물들이 어떤 방향에로 자라나는가를 똑똑히 리해할 수 있습니다. 시나 동요는 반드시 어떤 시대의 어떤 사회의 무엇을 찬양하였고 어떤 것을 미워하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주요하게 주려고 하는 사건, 인물, 자연 풍경, 사상을 어떻게 표현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좋은 곳은 독서 일지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 동요 같은 짤막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은 앞으로 우리들이 글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또는 읽은 후에 그 작품을 분석하고 나면 그 작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자기 자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느낌을 그냥 내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적어 두는 습관을 부쳐야 합니다. 자기의 느낌을 정리할 때에는 자기가 그 작품에서 지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배웠으며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은 작품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어느 때나 그 작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자기가 작품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생활에서 사상에서 좋은 작품을 통하여 무엇을 더 배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가를 더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학 작품은 동무들의 지식을 더 넓혀 주며 사상을 더 굳게 하여 주며 감정을 부드럽게 하여 주는데 힘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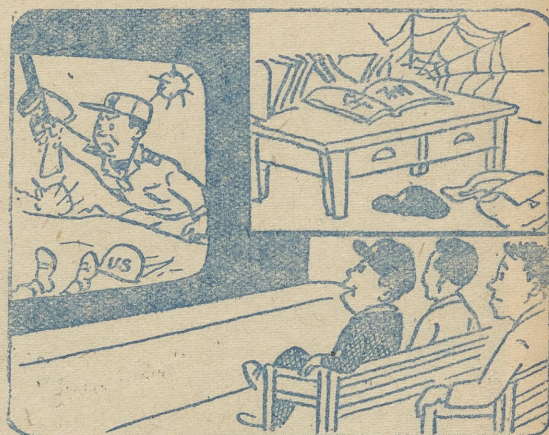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동무들은 좋은 작품, 자기 생활에 적합한 작품들을 골라서 많이 읽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여 자기 생활과 사상을 공산주의자 다운 참다운 인간으로 되기 위한 투쟁에 이바지 합시다.

착한 학생

이 거울에 비친 소년단원들을 아십니까? 이 동무가 바로 마음 착한 학생으로 이름 난 평남 개천군 알일 인민 학교 대 3 학년 한 종순 동무 입니다. 어느 날 개천 역전에서 눈먼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발견하고 종순 동무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 할머님 집까지 친절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동무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 입니까? 우리도 이 모범을 따릅시다.

좋은 일엔 베돌이 나쁜 일엔 감돌이

이 거울에 비친 동무는 황북 평산군 와현 중학교 대 1 학년 2 반 조 익은 동무 입니다.

익은 동무는 수업 시간 때면 잠자기에 《열성》이고 모두가 땀흘리며 일 할땐 슬쩍 빠져 달아 나기 일수이지요. ↓

↑ 또 저녁 숙제 시간땐 밤 늦도록 영화 구경 다니기에 《열성》이랍니다. 동무들! 익은 동무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무들 주위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요?

파연 세번을 날랐다고 우길 수 있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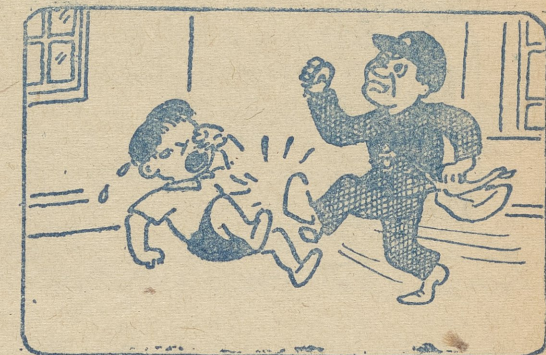
소년단 거울에는 함북 온성군 6 중 학교 대 3 학년 2 반 동무들이 시험 포전에서 일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날 작업은 퇴비를 나르는 일이 였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따찌까에 가득이 담아 세번씩 퇴비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덕재 동무는 절반도 못되게 세 번 나르고는 자기도 당당히 세번을 날랐다고 우겼습니다. 물론 세 번을 날른 것만은 틀림 없지요. 그러나. 덕재 동무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요? →

날치기 군'들

← 동무들 거울에 비친 《날치기'군》들을 보십시요. 이 동무들은 누구일가요. 알아 보았드니 글쎄 평양 기림 중학교 대 2 학년 2 반 정 익선, 김 장선, 리 세환 동무들이 였습니다. 이들은 화단을 마구 짓 밟고 뛰여 다니는가 하면 마지막엔 정성껏 심은 나무까지 꺾고 있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비겁한 싸움'군

동무들 강원도 평강군 옥동 중학교 대 김 병호 김 상섭 동무들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들은 문봉 인민 학교 대 어린 동생들이 지느리 부락을 지날때면 무터대고 을러 대거나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는 《비겁한 싸움'군》이랍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한 행동입니까? 이것이 파연 소년단원들의 참다운 품성일가요? →

마음도 거리도 깨끗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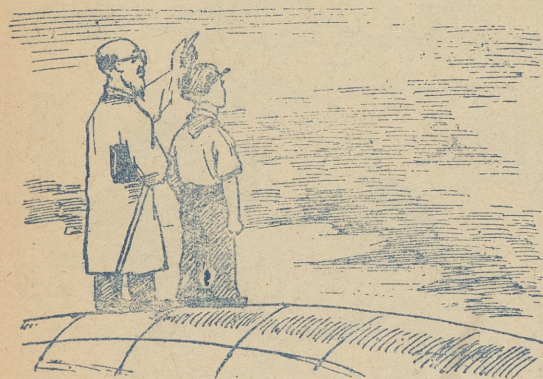
어느날 거울에는 깨끗한 옷차림에 씩씩한 소년단원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들은 일요일마다 집들을 찾아 다니며 집주변을 손질해 주고 변소 오물장도 위생적으로 개조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 시면 만포 거리는 이들로 해서 깨끗해 집니다. 이들은 바로 만포군 만포 중학교 3 학년 동무들입니다. 이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학생들…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오늘은 많이들 왔구나.

학생들…예! 모두 한 가지씩 물어 볼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척척 할아버지…그래 어서 물어 봐라, 척척 대답 할께.

정근…할아버지 제가 먼저 묻겠어요.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이나요?.

척척 할아버지…음 그럴듯한 문제구나 너희들은 태양 광선이 어떤 색들로 되였는지 알겠니?

정근…네! 붉은 빛으로부터 푸른 빛까지 7색으로 되여 있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그렇다. 태양 광선에는 보이는 광선으로 붉은 색, 등 (오렌지) 색 황색, 록색, 청 (파란) 색, 람색, 자색 합해서 7색이다. 이것이 모두 합쳐 지면 백색광이 된다.

그런데 이 광선이 공기 속에 들어 오면 몬지라든가 혹은 다른 적은 알맹이에 부딪쳐서 매 색마다 각각 분산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 중에서도 하늘 색이 가장 세게 분산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엔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정근…아! 알겠어요, 때문에 먼 산은 록색으로 보이지 않고 진한 곤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군요.

척척 할아버지…암 그렇구 말고…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달에서 하늘을 본다면 그것은 전혀 딴판으로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달에는 대기가 없다. 따라서 모든 색들이 분산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은 검게 보인다.

호철… 할아버지 비누로 씻으면 왜 “때„가 잘 빠지나요?.

척척 할아버지… 이것을 알자면 먼저 “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호철… 그야 더러운 것이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 하하 물론 더럽지, 바로 왜 더럽다고 하는가 말이다.

호철……

척척 할아버지 …“때„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과 땀에 더러운 몬지가 엉켜진 것이다.

철호… 그럼 몸에 “때„가 끼였을 때 몸이 찌뿟하고 답답한 것은 무엇 때문이예요.

척척 할아버지… 바로 이제 말한 “때„가 땀 구멍들을 막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되면 기분도 상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몬지 속에 들어 있는 병균이 몸에 들어 가서 병을 이르킬 수 있다. 때문에 목욕과 세탁을 자주 해야 한다.

철호… 정말 목욕과 세탁은 자주 해야 하겠군요.

척척 할아버지… 암 그렇구 말고… 자 그러면 처음 네가 묻던 문제를 해답하자 비누에는 가성소다 (양잿'물) 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지, 그런데 가성소다는 기름을 녹이는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비누로 씻으면 “때„가 잘 빠지게 된다.

철호… 아 이제야 잘 알겠어요.

영세… 할아버지 나도 하나 물어 보겠어요.

척척 할아버지… 너는 또 무슨 문제냐

영세… 우리 꼬마 기상 관측소에선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을 보고 다음 날이면 일기가 나쁠 것이라는 것을 예보 하군 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척척 할아버지… 거참 흥미 있는 문제구나, 너희들 제비는 무얼 먹고 사는지 알고 있냐?

영세… 그야 공중에 날아 다니는 벌레를 먹고 살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 그렇다. 너는 동물도 아주 썩 잘 알고 있구나. 들어보라 비가 오기 전이나 날씨가 흐리게 될 때면 공기 중에는 많은 물방울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벌레의 날개들도 습기를 띠게 되며 무겁게 된다. 때문에 벌레들은 낮게 날아 다닌다. 그러면 제비도 벌레를 잡아 먹기 위해 나추 떠다니지. 그런데 우리는 적은 벌레는 잘 볼 수 없으나 제비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뜨면 비가 온다고들 한다.

영세… 참 정말 그렇군요.

척척 할아버지… 그럼 꼬마 기상 관측자들을 위해 기상 예보 방법 한가지를 더 알려 주지

너희들은 야영 생활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모임을 가질 때가 있겠지. 이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 가면 이튿날 날씨가 좋고 땅으로 깔리게 되면 다음날 일기는 비가 오거나 혹은 날씨가 나빠진다.

영세… 그건 또 무슨 원인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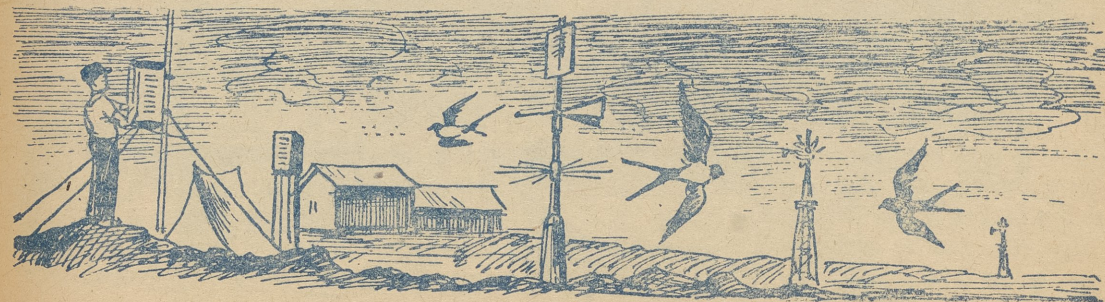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이제 방금 네가 묻던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연기는 아주 적은 숯 검정 알맹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 이때도 숯 검정 알맹이들이 공중에서 물'기에 젖어 무거워지면 하늘로 올라 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땅에 깔리게 된다.

정호… 할아버지 나는 꼬마 동물학자예요. 그런데 다람쥐나 여우 혹은 늑대는 꼬리가 아주 긴데 달리기에 불편하지 않을가요?

척척 할아버지… 글쎄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단다. 다람쥐나 늑대, 여우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나무를 곧바로 쉽게 뛰여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데 꼬리를 리용하고 있다.

정호… 그럼 긴 꼬리는 배 뒤'전에 있는 조종 키 (핸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척척 할아버지… 그렇다. 이를테면 배 뒤'전의 키(핸들)는 물의 압력으로 배 방향을 조정한다면 짐승들의 꼬리는 공기의 압력으로 조정하는 공중 키(핸들)로 리용되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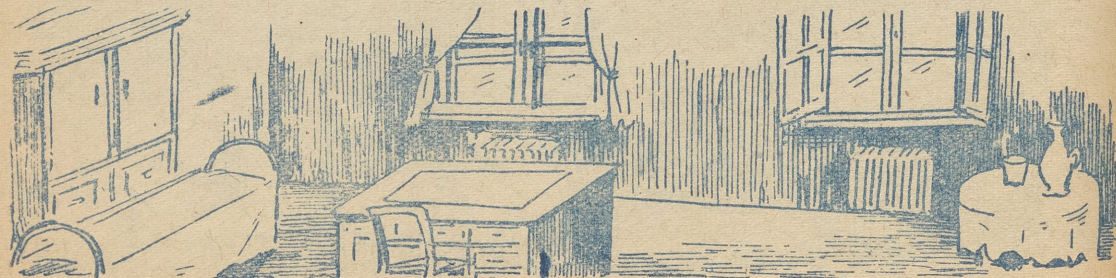
수남… 할아버지 나도 하나 묻겠어요. 우린 얼마 전에 훌륭한 6층 아빠트로 이사했어요. 그 곳에 가니 창문이 모두 이중으로 되였는데 왜 그렇게 했을가요. 차라리 유리 창 틀은 하나이고 유리 두께를 이때

로 하면 오히려 로력과 나무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척척 할아버지… 암 그럴수도 있지 그러나 너의 생각은 잘못 되였다. 너의 집은 창문과 창문 사이에 얼마간 사이가 떠여 있지 않더냐?

수남… 떠여져 있어요.

척척 할아버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이중 창문을 하는 것은 겨울에 바깥 찬 공기가 방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유리 보다 공기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물질이다. 때문에 창 사이에 있는 공기는 바깥 찬 공기를 막아낸다. 만일 유리 두터이를 2배로 한다 해도 역시 유리는 바깥 찬 공기를 방안에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수남… 그럼 이때 창 사이에 공기를 없애면 더욱 좋겠군요.

척척 할아버지… 암 그렇구 말고 바로 그 원리를 써서 《보온 병》이라는 것을 만들었단다. 이 병은 이중으로 병을 만들고 그 사이를 진공이 되게 하였다. 이 괴상한 병 속에 넣은 물은 대단히 오랜 시간 처음 넣을 때 온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 병은 지금 남포 유리 공장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

수남… 알겠어요. 그럼 겨울철을 앞두고 문틈을 부치는것도 이 원리에서 나왔군요.

척척 할아버지… 그렇다 그런데 어떤 집들에서는 한쪽 문만 종이로 막고 바깥 창문은 그대로 두는데 이것은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바깥 문을 봉하지 않으면 바깥 찬 공기가 창 사이에 가득 차서 유리를 통해 방 안에 전달되여 방안 공기는 차거워진다.

동식… 그럼 반드시 유리 창문 밑에 스팀 라지에타를 놓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 그래 이것도 관계가 있지 창 밑에 라지에타를 놓는 것은 거기에서 더워진 공기가 창을 스쳐 우로 올라가기 때문에 유리가 전달하는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방안 공기의 흐름은 라지에타에서 더워진 공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천장에서 차거워 진 공기는 바닥을 스쳐 창 곁으로 모이게 된다. 여기서 다시 더워진 공기는 또 우로 올라간다. 이렇듯 공기는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 안은 더워지게 된다.

동식…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진 어떻게 해서 무엇이나 다 그렇게 잘 아세요.

척척 할아버지… 그것은 아무런 비밀도 없다. 오직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노력만 하면 너도 나처럼 무엇이든지 다 잘 알게 된다.

학생들…우리도 힘껏 노력하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척척 할아버지… 오냐 잘들 가거라.

(1) 1941년 5월이였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감방에서는 세상에 태여난 아기의 첫 울음 소리가 울려 나왔다.

이는 감옥에서 출생한 혁명 투사 김 창수의 딸인 유순이의 첫 울음 소리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순이를 낳은 다음날 억울하게도 감옥에서 세상을 버렸다.

(2) 감옥에서 출생한 유순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할머니는 배고파 우는 소녀를 안고 동네 부인들을 찾아 다니며 젖을 빌어 먹이군 하였다.

착한 부인들은 유순이를 불쌍히 여겨 매일 같이 그에게 젖꼭지를 물려 주는 것이였다.

(3) 1943년 봄이였다. 공작의 임무를 띄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 창수는 처음 보는 자기 딸을 품에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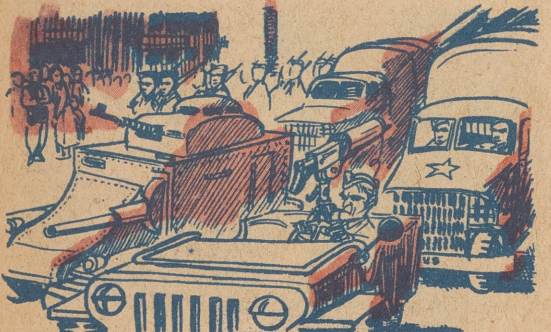
가엾게 감옥에서 옥사한 안해와 유순의 신세를 생각할 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격분이 더욱 불타 올랐다.

(4) 항상 이집을 감시하고 있던 최구장 놈은 김 창수가 집에 들린것을 알고 곧 많은 순사들과 형사들을 거느리고 달려들었다. 난데 없는 사람들의 인기척에 근처 개들이 요란히 짖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유순이네 집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5) 놈들이 방문을 열고 뛰여 들었다. 그러나 방안에는 유순이를 품에 안은 할머니 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놈들은 할머니 더러 아들이 간곳을 대라고 야단쳤다. 그러나 할머니는 태연히 말하였다 《어리석은 놈아! 제자식 죽이자고 입을 놀릴 에미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6) 놈들은 할머니를 끌어 내였다. 할머니는 죽음으로써 놈들의 혹독한 고문에 대항하였다. 일제놈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할머니를 위협하였다. 놈들은 유순이를 불 속에 집어 던졌다. 자지러 지는 아기의 울음 소리가 할머니 귀청을 때렸다. 할머니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7) 그날 밤이 였다. 놈들의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다 못해 할머니는 원한에찬 일생을 마치였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순간 불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건져낸 유순이를 외할머니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 하였다.

(8) 1945년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일제는 멸망하고 어둡고 괴롭던 이 땅에는 광명의 새날이 밝았다. 해방을 맞이한 외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조선 해방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9)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에는 일제대신 미제 승냥이 무리들이 기여 들었다. 또다시 남쪽 땅에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 리 승만 역도들 때문에 인민들은 혹독한 탄압과 억압 속에서 살게 되였다. 어느날 외할머니 집으로 조 돼지라고 불리우는 간악한 지주놈이 찾아 들었다.

(10) 조 돼지는 유순이 외할머니가 진 빚을 물어 내라고 으르렁 거렸다. 조 돼지는 아무리 울러봐야 수가 없음을 알았던지 할머니 옆에 서 있는 일곱살 나는 유순이를 빗'값으로 데려가고야 말았다.

(11) 조 돼지는 그날로 유순이를 머슴으로 부려 먹기 시작하였다. 유순이는 눈코 뜰사이 없이 부엌일이며 아이보는 일로 잠시도 쉴사이가 없었다. 조 돼지는 그래도 일을 잘 못한다고 따라다니며 성화를 먹였다.

(12) 밤이면 찬방에서 새우잠을 자야했다. 그럴 때마다 유순이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 지군하였다. 그는 왜 자기에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찾아 오지 않는가를 생각했다. 그리고는 서글피 혼자 울군 하였다.

(13) 유순이는 밤새 쿵쿵거리는 대포 소리를 꿈'결에서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1950년 미제 원쑤놈들은 리 승만 역도를 시켜 공화국 북반부에 침공하였으나 용감한 인민 군대는 원쑤를 단숨에 처부시고 서울을 해방하였다. 새벽이 되였다. 그가 뜰안으로 나섰을 때 사랑방은 이사간 집처럼 어수선하였다.

(14) 이때였다. 처음 보는 인민군 군관 한 사람과 전사 두 사람이 대문으로 불쑥 들어왔다.

유순이를 품에 안으며 《애야! 우린 너희처럼 못살고 천대 받는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 온 인민 군대란다! 이제 너는 지주놈의 손에서 해방 되였단다》하고 힘있게 말하였다.

(15) 뒤미쳐 대문을 들어 서던 키큰 정치 부련대장은 유순이를 발견하자 못박힌듯 오래오래 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이름과 부모들에 대해 물었다. 유순이는 목메인 목소리로 메주알 고주알 죄다 이야기 하였다. 이때였다. 별안간 정치 부련대장은 《유순아!》하고 그를 품에 끌어 안는 것이였다.

(16) 꿈에도 잊을 수 없던 아버지를 이렇게 뜻밖에 만나게 된 유순이는 금시 하늘에라도 오를 듯이 기뻐 날뛰였다. 아버지는 새옷에 새구두를 유순에게 사주었고 짬만 있으면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17) 그러나 또다시 작별의 날은 찾아왔다. 래일 아침이면 련대는 다시 남쪽으로 진격을 해야 한다. 아버지는 밤 한숨 자지 않고 행복하게 잠자는 어린 딸의 얼굴만 지켜 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속삭였다. 《유순아!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제 원쑤놈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 함께 영원히 잘 살아 보자!》

(18) 아버지를 떠나 보낸지 두달이 훨썬 지나 인민 군대는 일시적 후퇴를 하게 되였다. 유순이도 38선을 넘어 북으로 후퇴를 계속하고 있을 때 불시에 놈들의 포위 속에 들게 되였다. 아버지한테서 유순이를 맡아 돌봐 주던 녀맹 위원장은 불행이도 놈들의 적탄에 맞아 쓸어졌다. 그는 유순이더러 빨리 산을 타고 북으로만 가라고 이르고 쓸어졌다.

(19) 산 속에서 헤매던 유순이는 불행히도 치안대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때에 그의 품에서는 아버지가 주고 떠난 정치 부련대장 군복차림을 한 사진이 나왔다. 놈들은 유순이를 꽁꽁 꽁져 가지고 부락으로 내려왔다. 유순이는 눈앞이 아찔하였다.

(20) 연 사흘 계속된 고문에도 유순이는 끝내 견디어 냈다. 놈들은 드디어 유순을 총살하려고 끌어 내였다. 피투성이가 된 유순이가 다른 애국자들과 함께 놈들에게 끌려 어느 골짝이로 들어 설 때였다. 난데 없는 총성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니 후퇴하던 인민 군대들이 진격해 왔다. 유순이는 인민 군대의 손에 의하여 구원되였다.

(21) 유순이를 구원해준 인민 군대는 유순이를 보자 깜짝 놀래였다. 그는 다름아닌 아버지 련대의 소대장이였던 것이다. 그는 유순이를 끌어 안으며 아버지는 락동강 계선 전투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비통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순이를 부락하더라는 말까지 목메여 하는 것이였다.

(22) 유순이는 소대장의 등에 업힌채 북으로 북으로 들어갔다. 유순이는 아버지 마저 잃은 고아가 된 설음으로 소대장의 등에서 흐느끼군 하였다. 그 때마다 소대장은 《슬퍼 말어! 아버지는 비록 세상 떠나셨지만 그대신 너를 언제나 따뜻이 돌봐주는 당과 정부의 너그러운 품이 있다.》하고 힘있게 말하군 하였다.

(23) 공화국의 따뜻한 품안에 안긴 유순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찾아들었다. 그는 동북 길림 유자녀 학원에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없이 행복하게 배우며 뛰여 놀았다. 그는 유자녀 학원의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가 얘기하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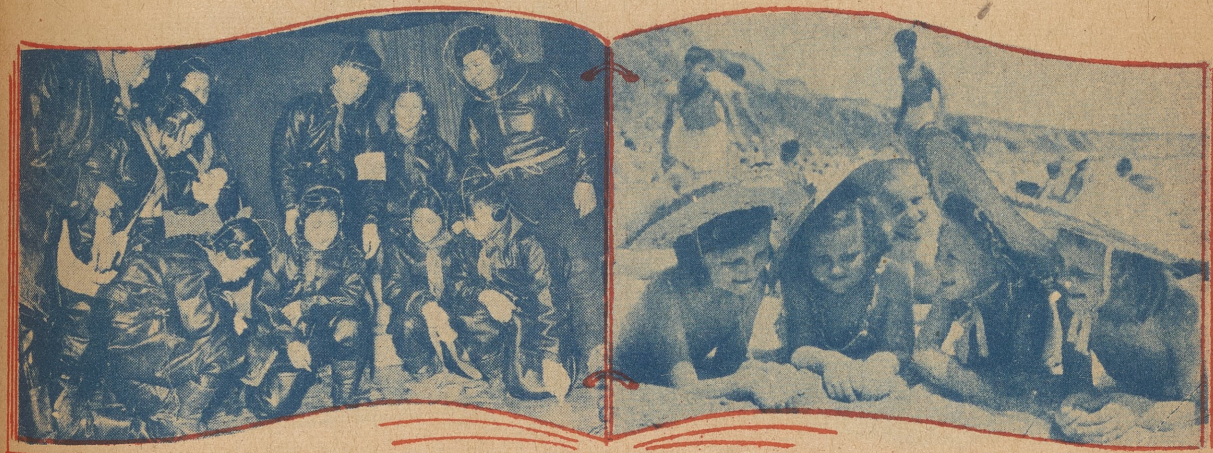
(24) 유순이는 인민, 초중반을 마치고 지금은 남포 유자녀 학원 고중반 1학년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있다. 그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여 그처럼 바라고 원하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 일하리라는 굳은 결의 밑에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고 있다.

로케트 려행 (10)

즐거운 여름날의 명절 6.1 국제 아동절을 맞는 동무들에게 나는 로케트를 타고 세계 각 곳으로 다니며 모아둔 나의 귀중한 앨범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동무들은 이 앨범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과 자본주의 국가 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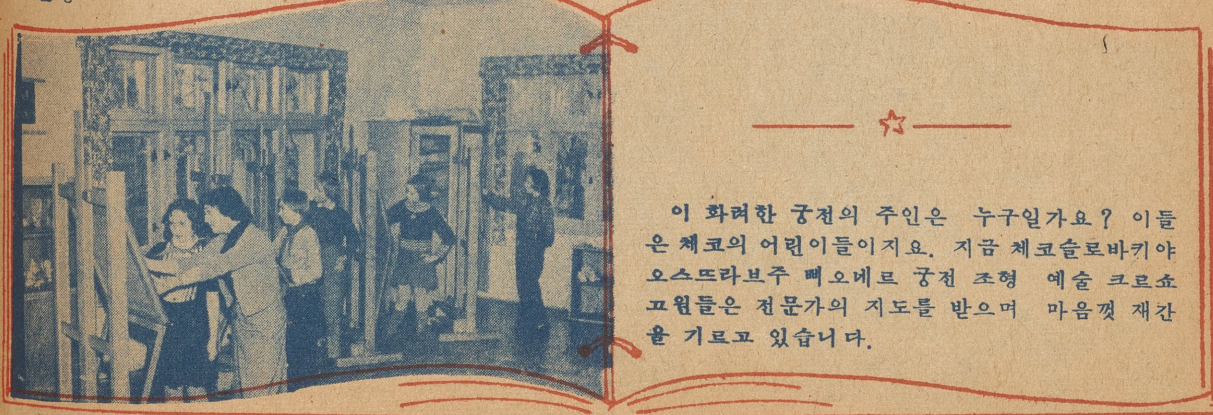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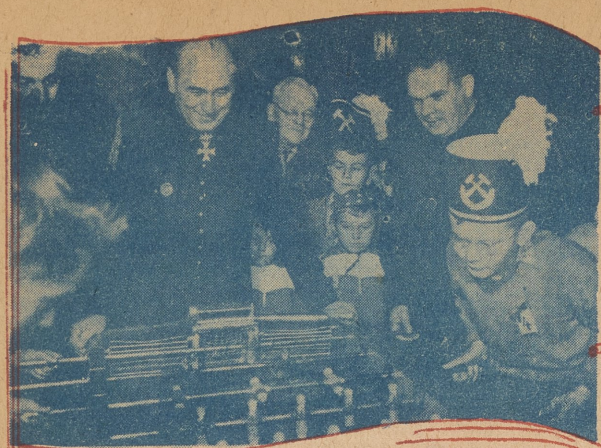
위대한 쏘련의 삐오네르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어린이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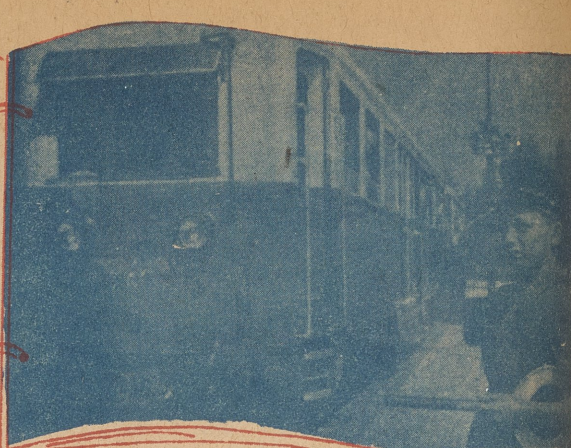
사진은 쓰딸린쓰끄 제 74 기숙 학교 로어 시간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자고 식사하고 공부와 문화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공상하자! 공상은 과학의 어머니다!》

이들의 공상은 지금 별나라로 날아가 우주 공간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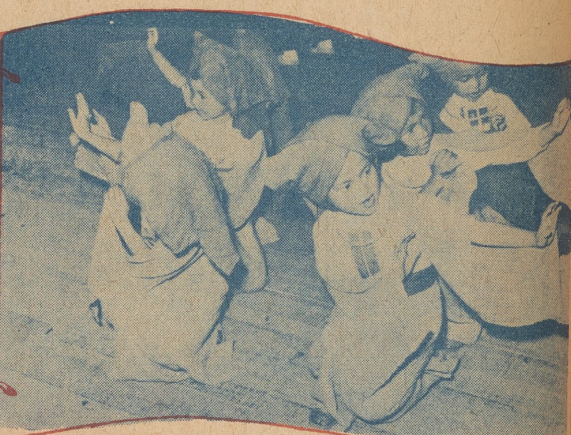
이들은 《우주에로의 비행》이란 과학 환상 모임을 가지고 있는 북경시 소년 궁전의 어린이들입니다.

루마니야의 도시와 해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즐거운 야영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 동무들과 작별하고 이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바다'가로 달려 왔습니다.

이 화려한 궁전의 주인은 누구일가요? 이들은 체코의 어린이들이지요. 지금 체코슬로바키야 오스뜨라브주 삐오네르 궁전 조형 예술 크르쇼끄원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마음껏 재간을 기르고 있습니다.

파란의 광산도시 까또빗짜의 청년 궁전에서는 어린이들의 즐거운 오락회가 벌어 졌습니다.

그들의 경기에는 광업상을 비롯한 국가 간부들도 한목 끼고 있습니다.

《발차!》 역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멋진 소년호 렬차는 기적 소리도 요란히 떠납니다. 역장도 기관사도 손님도 모두 어린이들입니다. 웽그리야의 어린이들은 이 소년호 철도의 근무원이 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몽고 울란바또르시 제 2중 학교 어린 음악가들의 연주는 관중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들 아니면 다른 동무들의 연주를 동무들은 라디오에서 들었을 테지요!

월남 소년들은 6월 1일 국제 아동절을 맞이하여 자기들의 《세춤》을 외국의 어린 벗들에게 보이며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즐거운 야영의 하루도 저물고 아늑한 저녁이 왔습니다. 그리운 부모님과 사랑하는 벗들에게 편지를…… 그들은 문화 위생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진 야영 기차에서 생활하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명승지를 찾아 려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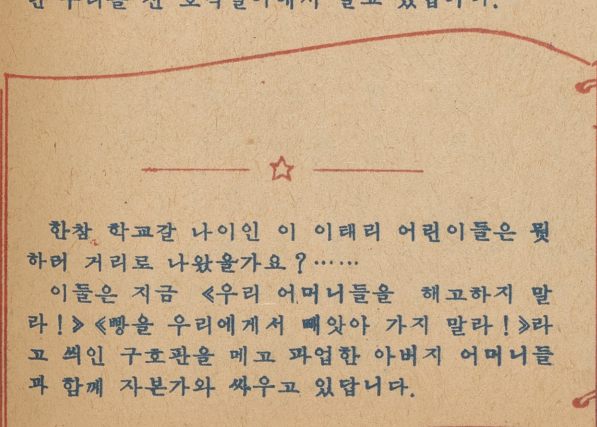
그럼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는 어린이들의 생활은 어떨가요?…

이 사진은 보기만 해도 슬퍼집니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이 이르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알제리아 어린이들은 사랑하는 고향을 버리고 죽음을 피해 외국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오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남반부 형제들을 《노예》로 팔아 보내려는 남미 베네주 엘라의 주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막벌이 나간 부모는 정말 돈을 쥐고 돌아 올지?! 어린이는 근심에 잠겼습니다.

세계에서 문명한 나라라고 뽐내는 불란서에서는 자본가 놈들은 배불리 먹고 호강을 부리지만 수 많은 근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교외에서 사는 로동자들은 집이 없어 이런 우리를 친 오막살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일 60만 동포들은 한결 같이 자기 조국 공화국 품안으로 돌아 올 것을 결의해 나서고 있습니다. 재일 조선 소년들은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도 갈 수 없어 루추한 판자'집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창 학교갈 나이인 이 이태리 어린이들은 뭘 하러 거리로 나왔을가요?……

이들은 지금 《우리 어머니들을 해고하지 말라!》《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말라!》라고 씌인 구호판을 메고 파업한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자본가와 싸우고 있답니다.

손해본 돈은 얼마?

서울 거리를 돌아 다니며 담배를 팔던 한 소년은 지나가던 한《신사》에게 150 환 짜리 담배를 팔았다.

그런데 《신사》는 1,000 환짜리 돈을 내 놓았다. 소년에겐 마침 가승 줄 돈이 없어 가까이에 있는 상점에가 그 돈을 바꾸어다 가승 850 환을 내 주었다.

그 《신사》가 돌아간 후 상점 주인이 뛰여와 1,000 환짜리 돈이 위조 지폐이라고 하는 바람에 소년은 할 수 없이 다른 돈 1,000 환짜리를 내 주었다.

그러니 소년이 손해 본 돈은 얼마이겠는가?

현상문제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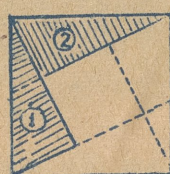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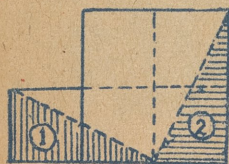
답 (인민학교 동무들이 풀 문제)

(초급반 동무들이 풀 문제)

1. 3. 37. 111

당선자

평양시 제 26 중학교 (인민반) 황 창 건
량강도 보천군 청봉 중학교 (인민반) 조 죽순
자강도 강계 제 4중 (인민반) 하 은
평남도 강동군 도덕 중학교 (인민반) 조 영 전
평남도 온천군 금속 중학교 (인민반) 김 복 순
황남도 옹진군 본영 중학교 (인민반) 윤 은 숙
황남도 재령군 동신흥 인민 학교 박 칠 성
자강도 자성군 자성 중학교 김 태 식
평남도 개천군 조양 중학교 함 민 자
평북도 태천군 신도 중학교 김 용 률
강원도 철원군 부압 중학교 승 옥 순
개성지구 월전 고중 초급반 김 범 래
함북도 청진시 제 7 중학교 오 영 기
평양시 서포 중학교 석 윤 섭
강원도 안변군 신화 중학교 박 처 호
평남도 온천군 서하 중학교 리 병 렬
자강도 중강군 중강 고중 초급반 리 춘 선
평북도 운전 제 1 중학교 김 수 영
함북도 경원 제 9 중학교 김 철 근

☆

편집위원 김 주현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응호 송 정우 정 태선 조 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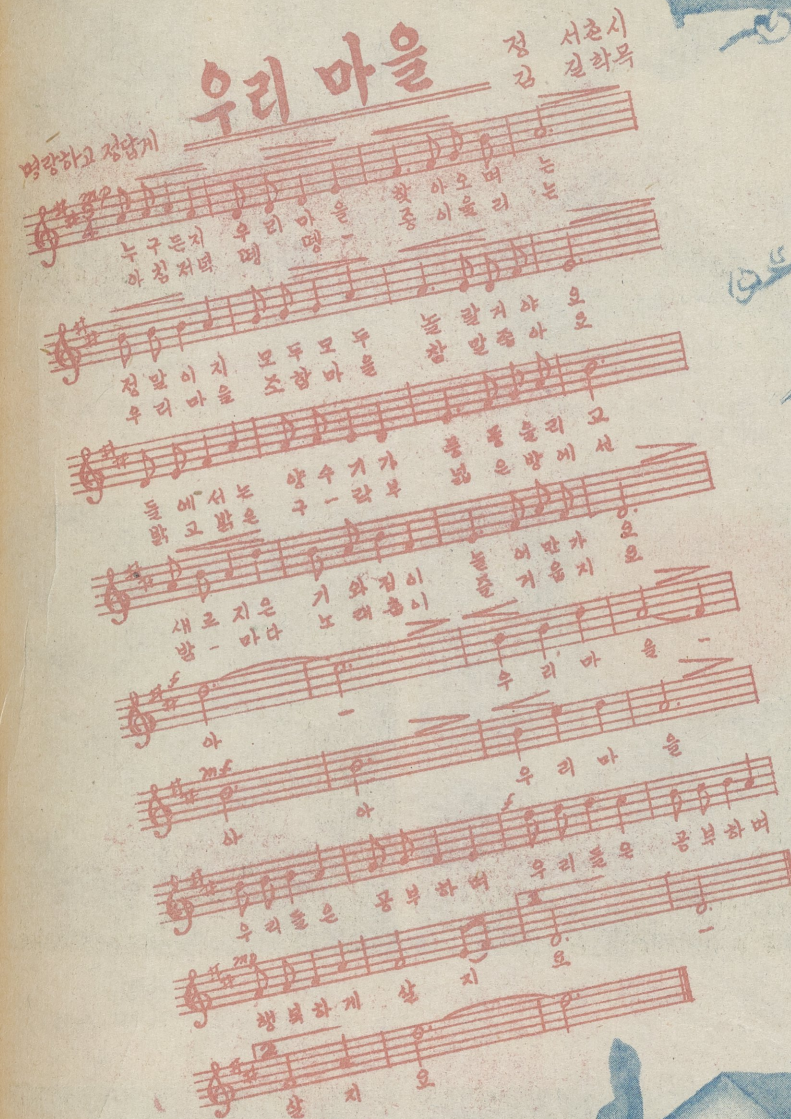
1959년 6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6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6호 (총 116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4137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우리 마을

정 서촌 시
곡 김학목

명랑하고 정답게

누구든지 우리마을 찾아오며는
아침저녁 뗑 뗑— 종이울리는
정말이지 모두모두 놀랄거야요
우리마을 조합마을 참말좋아요
들에서는 양수기가 붕붕울리고
밝고밝은 구—락부 넓은방에서
새로지은 기와집이 늘어만가요
밤—마다 노래춤이 즐거웁지요
아— 우리마을—
아 아 우리마을
우리들은 공부하며 우리들은 공부하며
행복하게 살지요—
살지요

철이가 탄 로케트는 달 주위를 몇번 돌았다.

드디여 로케트는 스르륵 달 나라에 도착 했다.

철이는 무릎까지 빠지는 달 몬지 속에 첫 발을 내 디뎠다.

철이— 야— 바로 여기가 그렇게도 오고 싶든 달 나라로구나

철이—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정말 아름답구나

철이— 막 나는 것 같구나. 여기서는 몸이 6분지 1로 가벼워 지거든…

철이— 달 나라의 산은 험하기도 하다. 깜깜한 저 속에 무엇이 있을가?…

철이— 앗 저기 괴상한 것들이 있다. 저것이 무엇일가?

철이는 달 나라 사람들에게 잡히고야 말았다. 잡혀간 철이는 어떻게 될가?…